

“어머님 자녀는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꽤 많이 하고 독서 관련 상도 많이 탔는데 중학교에 올라와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고 수 상도 없는 거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제가 도서관, 서점, 역사박물관 등 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가 책 욕심도 많았고 글쓰기 대회 나가 상 타면 정말 즐거워했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그 런데 애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성적이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 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이 독서에 손을 놓았어요. 아 이도 독서 열정이 식은 거 같고요.”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상담 내용으로, 중학교에 진학하 며 독서 습관이 무너진 학생의 사례다.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웠 던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 열정이 중학교 진학 후 식어버린 것 이다. 이는 독서와 공부를 연계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다. 우선 ‘독서가 곧 공부’라는 인식의 전환, 다시 말해 꾸준한 독서의 효 과가 언젠가 성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제

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꾸준한 독서와 공부를 병행 하고 있다. 좋은 성적의 힘은 독서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자.

독서와 성적의 상관관계

“넌 전교 1등 비결이 뭐야?”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약했던 국어는 물론 다른 과목 성적까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지식의 폭도 넓어져 새로 운 지식을 배울 때도 쉬웠어요.”

“어떻게 책을 읽었는데?”

“독서 노트를 만들어 이해한 내용을 제 언어로 재구성해서 정 리하고, 제 생각도 쓰고 궁금한 것은 물음표를 만들어 질문하 고 모르는 개념어나 어휘가 나오면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 정리 하며 암기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내용과 연관 지어 보고 교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꾸준히 했어요. 독서와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과서도 독서라고 생각했어요. 교 과 학습 목표를 먼저 읽고, 단원의 키워드를 찾아 개념을 정리

하고 내용을 읽으며 정리했어요. 하나의 어휘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도 정리하며 어휘력을 늘려 나갔죠. 이렇게 하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현재 고등학생인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정독을 통한 독해 차원의 독서를 했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지식 습득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서 또한 공부’라는 신념으로 꾸준히 책을 읽었다는 것과 교과목과 관련 된 독서를 했다는 점, 교과서를 독서의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통해 국어는 물론 다른 교과 성적 향상도 꾀했다는 점도 흥미 롭다.

“공부 좀 해라. 책도 좀 톹툭이 읽어!” 이렇게 공부와 독서를 따 로 주문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공부 따로, 독서 따로’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녀는 시간 부족 타령을 하며 독서를 포기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적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공교육 현장 교사들이 독서와 학업 성 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만큼 독서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독서가 교과목 성적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 는데, 1위 국어,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영어, 5위 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또한 독서와 성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기 자녀의 단단한 독서 습관은 좋은 성 적으로 이어진다. 자녀에게 독서 환경과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 인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시간이 없어 독서를 못 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독서 전 략의 부재에서 나온 푸념일 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